해외건설, 연간 150억 달러 수주' 무난히 '돌파 예상

- 상반기 실적 84.9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기록, 하반기에는 67억 달러 기대 -

상반기 수주 실적, 역대 최고치 기록

금년도상반기해외건설수주실적은6월말 현재 156건 84.9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비해37% 증가함으로써전년도의호조세를이어가고있다. 이수치는상반기수주실적만으로는우리나라해외건설역사상최고치의기록이다. 특히, 중동지역은연일이어지고 있는 고유가 행진 속에 최대 호황기였던 지난해 수준을 약간 상회하였으나,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은 모두 전년 대비 2배이상의수주실적증가세를시현하였다.

이러한 수주 증가 요인은 첫째, 고유가에 따른 중동 및 일부 아프리카 산유국의 플랜트 공사 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운데대형기업들을중심으로부가가치가높은대형플랜트공사위주의영업활동을전개한점을꼽을수있다.

둘째, 1997년 외환 위기 이후중단되다시피 하였던 우리 기업들의 투자 개발형 공사 추진이 속속가시화되면서수주로이어지고 있다. 특히, 상반기 투자 개발형 공사 수주 실적은 12.4억달러로전체의 15%에육박하고있어하반기전망을더욱밝게하고있다. 아울러전자, 자동차등다른업종기업의해외 설비 확충으로 그룹사 공사도 꾸준히 늘어나고있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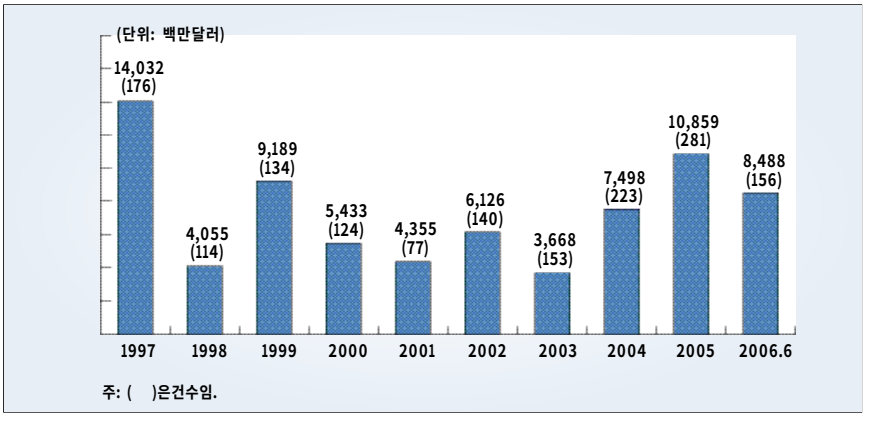
셋째, 내수 침체 장기화 조짐에 따라 중소 · 중견기업의해외진출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 있다. 아직까지는 이들 기업들이 우리나라 해외건설에서차지하고있는비중은 미약하지만, 국내 개발 사업을 통해 경험을 축적한 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 영업 전략은 향후 수주 실적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을관망하고있는국내기업들에게적잖은 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넷째,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수주 가능성 확대를 들 수 있다. 우선 우리 기업간 또는 선진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의 경우 우리 기업간 합작공사는 10건, 13억달러에이르고있으며, 금년에도 상반기에만 9건, 9억 달러를 수주하였다. 또한 시공사와 엔지니어링사간, 공기업과 시공사 또는 엔지니어링사 간 전략적 제휴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투자 개발형 공사 추진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내 시행사와 시공사 간 개발사업 공동 참여도조만간가시화될것으로보인다.

하반기, 전망 밝지만 부정적 측면도 상존

하반기 수주 전망은 긍정적인 측면이 매우 우세하나 부정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긍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중동의석유 · 가스관련플랜트공사가지속되고있다는것이다. 아울러민간투자개발형사업참여확대로아시아지역수주증가와 함께 경쟁력이 저하된 토목 · 건축 부문 수주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

최근 10년 간 해외 수주 실적 추이



지역별 상반기 해외 수주 실적

(단위: 억달러)

구분	2005. 6		2006. 6		전년 대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61.9(100.0)	136	84.9(100.0)	156	137.1
중동	43.7(70.6)	32	44.6(52.5)	33	102.2
아시아	10.2(16.5)	83	22.8(26.9)	92	223.9
기타	8.0(12.9)	21	17.5(20.6)	31	217.2

수 있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 침체 여파에 따라 중소 · 중견 기업의 해외 영업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고 우리 기업들의 시장 다변화노력으로중동일변도의수주구조가점차무너지고있는것도하반기수주전망을 밝게하는요인으로분석된다.

한편, 이처럼우세한긍정적요인속에서도 부정적 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첫째, 중남미,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등우리기업진출가능신시장개척이 아직까지도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중소 · 중견 기업의해외진출활성화에따라보다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해외 시장 경험 축적 이미흡한중견기업의무리한개발사업참여는 보다치밀한타당성 검토절차를거쳐 이루어져야하며, 단독추진보다는개발사업수행경험이풍부한국내기업또는현지사정에 정통하고 능력 있는 현지 업체와의 합작참여가바람직하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 압박도 무시할 수없는상황이다. 해외공사의경우달러화를 통한 계약 체결 빈도 수가 많아 견적시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주에 적지 않은영향을줄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계약시 가급적 달러화보다는 유로화 또는 현지화로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시공시 기자재, 장비사용등도환리스크를최소화할수있도록접근해야한다.

특히, 대형기업의경우이러한환리스크 대응 시스템을가동하고있으나, 중소기업은개념조차모르는경우도있어적절한대응책마련이시급하다.

2006년 해외건설 수주 전망

(단위: 백만달러, %)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주전망
전체	8,488	6,699	15,187(100)
중동	4,462	3,680	8,142(54)
아시아	2,279	2,531	4,810(31)
기타	1,747	488	2,235(15)

주: ( )는전체수주액의점유율.

연간 수주액 150억 달러 넘어설 듯

이러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하반기에는 중동 37억달러, 아시아 25억달러, 기타지역 5억달러등총 67억달러상당의수주가 기대된다. 따라서, 금년도해외건설 수주는 작년보다 38%가증가한 150억달러에이를 것으로전망된다. 우리기업들이 상반기 입찰을통하여현재 계약협상이진행되고있는 프로젝트만을 놓고 보아도 금년 7월 중에 지난해 수주액인 109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연말에는 140억 달러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하반기 입찰을 통하여 계약되는 프로젝트도 상당수 있을것으로보여해외건설역사상연간 최고 수주액인 150억달러는무난히달성될것으로관측되고있다.

지역별로 보면 고유가 현상 지속과 함께 중동 지역의 정정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가운데최소4 5년간대형플랜트및인프라공사중심의공공공사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쏟아질것으로전망된다. 특히, 하반기에는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를중심으로초대형플랜트 공사수주가예상되어최대 호황을 보여줬던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하반기 중동 지역에서 37억달러상당의수주가예상됨에따라금년 총수주액은 작년보다 26%가 증가한 81억 달러에달할것으로분석된다.

아시아 지역은 우리 기업의 투자 개발형 공사추진이가시화되면서하반기에도각사가추진중인투자개발형공사와함께중소형 도로 공사, 민간 발주 상업용 빌딩 공사 수주도크게늘어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베트남, 카자흐스탄등에서부동산 개발사업 프로젝트 수주가 예상되며 태국, 인도 등에서도 대형 석유 · 가스, 석유화학 프로젝트 발주가 지속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하반기 아시아지역수주는약25억달러에달할것으로보여금년총수주액은 48억달러로작년의 2배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상반기에 이어 일부 아프리카 산유국중심의수주가예상된다.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에서의 수주도 두각을나타내기시작할것으로전망된다. 반면, 미주, 유럽지역에서의수주부진현상은여전할것으로 보인다. 이들지역에서 하반기에 약 5억 달러 수주가 예상되어 미주, 구주, 아주지역의올총수주액은작년보다다소 증가한 2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공종별 상반기 해외 수주 실적

(단위: 억달러)

구분	2005. 6		2006. 6		전년 대비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61.9(100.0)	136	84.9(100.0)	156	137.1
토목	3.5(5.7)	16	10.6(12.5)	25	299.2
건축	3.6(5.8)	21	17.3(20.4)	25	480.6
플랜트	53.3(86.1)	32	53.6(63.1)	24	100.7
기타	1.5(2.4)	67	3.4(4.0)	82	226.0

박형원
해외건설협회기획팀장